



[금융]
우리금융지주
회장·은행장 겸직
손태승호 출범 눈앞
04



코스피 2092.63 (+13.94)	↑	코스닥 693.67 (+11.30)
금리 1.97 (+0.01)	↑	환율 111.30 (-6.00) (8일)

모든 기기, 삼성으로 통한다… IoT 생태계 주도

삼성 개발자콘퍼런스 2018

스마트싱스 중심 IoT 확대
빅스비 응용 툴 개발 등
개발자들에 접근성 높여

“전세계 개발자들과
새로운 플랫폼 기반
새로운 가치 제공할 것”

삼성전자가 개발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스마트싱스’ 개발 접근성을 확대하고, ‘빅스비’를 응용 할 수 있는 개발툴을 새로 출시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IoT 시대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8(SDC 2018)’을 개최했다. SDC는 삼성전자가 개발자와 파트너들과 교류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2014년 처음 시작해 5년째 이어왔다.

올해 행사는 ‘미래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인공



고동진 사장이 SDC2018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능과 헬스 등 주제로 60여개 세션과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전세계 개발자와 서비스파트너, 디자이너 등 5000명이 참석했으며, 구글과 디즈니 등 글로벌 파트너도 함께했다.

◆미래기기, 스마트싱스·빅스비로 모여라

SDC2018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IoT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스마트싱스가 중심이다. 삼성전자

의 IoT 플랫폼으로, 휴대폰과 주변기기, TV 등 가전제품 등 기기를 연동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날 삼성전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싱스 개발자 워크스페이스를 공개했다. 기기를 스마트싱스에 연결하도록 돋는 개발툴로, 이전 버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사용자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돋는 ‘워크 위드 스마트싱스’ 인증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스마트싱스 워크스페이스는 스마트싱스 클라우드 커넥터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미 다른 클라우드에 연동된 기기를 스마트싱스로 불러올 수 있게 해준다. 신규 기기를 스마트싱스로 개발할 수 있는 키트와, 기존 지그비·Z-웨이브 기기와 연동해주는 스마트싱스 허브 커넥터도 포함된다.

인공지능 빅스비도 활용도를 더 넓혔다. 빅스비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인 ‘빅스비 캡슐’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툴, 빅스비 개발자 스튜디오를 통해서다. 빅스비가 탑재된 가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빅스비 캡슐을 빅스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할 수 있게 해, 개발자들에 대한 수익 배분도 암시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캡슐을 소개하면서 개발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다. 아담 사이어 비브랩스 CTO가 무대에 올라 셔츠에 불린 테이프를 넷타이로 변하는 마

술을 보여주면서, 개발자들 역할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는 이미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연동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기기를 품을 예정”이라며 “빅스비 개발툴이 출시되면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용자 편의도 ↑

개발 편의만 높인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삼성전자 IoT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우선 빅스비 언어 지원을 확대 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만 지원한다. 앞으로 영국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홈’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갤럭시 홈은 삼성전자가 만든 인공지능(AI) 스피커다. 음성 명령을 받아 연동된 기기를 제어하는 IoT 시대 허브 역할로 평가받는다.

모바일 환경 혁신도 예고했다.

폴더블폰에 탑재할 접히는 액정, 이른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면서 7.3인치 화면을 안으로 접어서 사용하고 휴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단내 양산할 예정이다.

차세대 모바일 인터페이스인 ‘원 UI’도 주목받았다. 폴더블폰 시대를 대비해 디스플레이를 펴고 접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반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으며, 내년 1월 갤럭시 S9과 갤럭시 노트9에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함께 폴더블폰 OS를 제작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는 새로운 커넥티드 리빙 시대의 기반이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용이하게 확장 가능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며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전세계 개발자들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죽도시장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8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 지역상품권으로 과메기를 구입한 뒤 시장 상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美 중간선거 결과에 환호한 증시… 동반 강세

(코스피·코스닥)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영향

코스피지수가 하루만에 상승하면서 2100선 회복을 목전에 뒀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 예상대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94포인트(0.67%) 오른 2092.6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120.88까지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선물옵션만기기에 따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100선 안착엔 실패했다.

이날 외국인은 4919억원 순매

수를 기록하며 지난 9월21일(8246억원) 이후 최대 순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58억원, 2297억원 어치 주식을 팔았다.

전날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시장 예상대로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다만 옵션만기일이어서 장 막판에 코스피의 상승 폭을 제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급등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보다 2.13% 급등한 26,180.30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2.12%, 2.64% 상승했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1.82% 상승했고, 대만 가권 지수는 0.37% 올랐다. 홍콩 H 지수도 0.42%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삼성전자(0.11%), SK 하이닉스(2.97%), 셀트리온

(2.14%) 등은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3.88%), LG화학(-1.47%), POSCO(-0.37%), 현대차(-1.86%)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30포인트(1.66%) 오른 693.6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장중 697.25까지 오르면서 700선 안착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6억원과 876억원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1108억원을 순매도했다.

/손임자 기자 sonumji301@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성장·물가따라 조정 결정”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 추이와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7월 금융통화 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10월 회의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통화신용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균원물가 동향 점검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



사점 등을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하면 양국 간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는 최근 국내 균원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품목별 특이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잇따른 정부 대책 영향으로 올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희주 기자 hzj89@